

평안하신지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부터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은 저를 동역자로 불러 주시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해줄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다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곳 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곳 중앙아시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딕이야기

엘딕센터는 엘딕 클리닉 및 다른 기독교인 입주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엘딕 센터의 운영을 관리하고 엘딕 클리닉을 통하여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도와 그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엘딕클리닉의 사역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의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현지 기독교 의료인들을 훈련시켜 키르기스스탄의 지방 도시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 클리닉을 모델을 통하여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3년전 비슈켈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곳의 국립의대와 협약을 맺어 20명 정도의 레지던트들이 순환하며 학습시키는 클리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의료진들을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성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동하며 기도하며 먹고 마십니다. 현재는 3명의 현지 의사들이 채용이 되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들과 함께 더 소외된 지역에 클리닉을 개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동진료 사역을 통해 시골 및 현지의 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딕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18명의 현지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 현지교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함께 할 때 이곳에 있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터키와 프랑스방문

5월3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터키에서 열리는 소속 선교단체의 총회의 참과 작년에 기적같이 찾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큰형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프랑스로 합류합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70대여서 일년에 적어도 한번씩은 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마음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모님과 큰형님네 가족과 귀한 가족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작년 상완골 골절로 한국에 방문하였던 나엘이의 뼈는 잘 붙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열심히 뛰고 달리고 먹습니다. 시온이 역시 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데 월반을 하여 2살 윗 터울의 오빠 언니들과 함께 공부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 송혜진 선교사 역시 사이버대학을 통해 영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가주는 전액장학금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기도제목

1. 엘딕센터에서 함께 동료로 경영하였던 제임스 사역자가 1년동안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저 혼자 많은 책임과 결정들을 감당하였는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2. 터키와 프랑스 여정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늘 생생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프랑스 큰 형님(최귀범-니콜라스)가족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